

원희룡 장관 ‘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뿌리 뽑을 것’ - 8일 오후 피해현장 찾아 점검·철콘연합회 대응 강화 당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(수)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월레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레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·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 - 앞서 국토부가 실시한 피해사례 실태조사(‘22.12.30~’23.1.13) 결과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의 86%가 월레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일 정도로 건설현장 내에 부당금품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.
- 원 장관은 부당금품 요구 및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갑질에 대하여 “국민을 불모로 행패를 부리고,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”이라며,
 - 특히, 정부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“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엄정 대응”하겠다고 하며, “더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”하라고 강조하였다.
- 이 자리에는 월레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대구·경북 철콘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하였으며, 원 장관은 “현장의 용기에 화답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처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 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일하는 사회를 만들고, 건설현장에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·관이 한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함께 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2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